

# “도반끼리 공부하니 새롭네요”

## 주지스님·포교사·경승단·방송작가 등 교계 연수 바람

### 전문지도자·프로 다양화·상설 연수원 개설 과제

제2차 조계종 교구본사 포교국장 연수, 사찰신도회 및 신행단체 지도자 연수, 승승단 연수, 방송작가초청 연수, 어린이법회 지도자 연수, 중·고등법회 지도자 연수, 법주사·월정사·마곡사 말사 주지 연수... 8월부터 오는 연말까지 계속되는 각 연수의 내용이다.

조계종 개혁총단 출범 첫 해인 올해 연수교육이 부쩍 늘었다. 올 상반기에 실시된 연수만 보더라도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연수, 종진비구니스님 연수, 전국포교사연수, 경승단연수, 포교국장단 연수, 국제포교사연수, 직할·해인·쌍계사 연수 등등.

승풍을 확립하고 수행과 포교를 위한 과제를 도출해내며 아울러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연수가 꼬리를 물고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조계종 주지의 연수 확산은 다른 종단에도 영향을 주어 종무원 연수·동방불교대 법사연수(태고종) 전국교구 총무원장 연수(대한법화종) 포교사연수(총화종) 등이 덩달아 활발하게 실시되었다.

특히 승려 재교육의 일환으로 일년내내 실시되고 있는 조계종 교구별 말사주지 연수에는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등 3원장 스님들이 직접 참석, 참가자들과 허심탄회하게 종단현안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 것도 연수의 큰 소득. 지방차지 환경등 시사 쟁점들에 대한 강의를 듣고 분과별 토의를 가지는데 문제의식과 함께 불교의 대 사회적 역할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는 것도 연수에서 얻는 또다른 수확이다.

지난 6월23일~24일 화성 신종사에서 실시된 경승단 연수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2백30여명의 경승들이 참석, 8년간에 부활된 연수회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경승활동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연수교육이 많아짐에 따라 이를 지도하는 전문 지도자와 내실있는 프로그램 개발, 상설 연수원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사에서 하는 연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 주최

측의 얘기다. 그러나 간혹 사찰 자체 행사와 겹치거나 장소의 비좁음 등으로 준비와 진행에 차질이 야기돼 체계적인 연수교육을 위해서는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종단차원의 상설 연수원 개설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화암스님은 “지역이나 본사 단위로 연수원이 건립, 불자들 뿐 아니라 일반 기업·공무원 등의 연수도 실시한다면 포교차원에서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경숙 기자)

경북 김천의 집(이영위)은 지난 22일 한국 기독교 1백주년기념관 강당에서 열린 경승단 창립 6주년 기념대회에서 경승들이 기억하는 ‘시인상’을 수상했다.

경승들은 소년소녀가장·결식노인과 아동에 대한 무료급식제공 등 불우이웃에 대한 끊임없는 봉사정신을 높이 평가, 자비의집을 시인상 수상단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승들이 기억하는 시인상”은 그해 시민운동발전에 공로가 큰 개인과 단체에게 주어졌다.

### 조계사 신협 창립총회

#### 이사장에 월주스님...사업계획 수립

조계종 사업부(부장 설승)는 지난달 22일 총무원에서 (가칭)조계사신협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신협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1백15명의 발기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 정관 승인, 임원선출, 사업추진계획

과 예산서가 승인됐다.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사장: 월주스님 △부이사장: 설승스님 △이사: 법타, 시현, 혜장, 원우, 현근스님 △감사: 정남, 종삼, 정진스님 △상무: 광복스님



“부처님 저는요...” 경북 김천의 집(이영위)은 지난 22일 한국 기독교 1백주년기념관 강당에서 열린 경승단 창립 6주년 기념대회에서 경승들이 기억하는 ‘시인상’을 수상했다. 어린이들은 첫날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조각실을 관람하며 부처님 말씀을 전해 듣고 있다.

### 성남불교 ‘화합·개혁’ 추진 결의

#### 지역스님 11명 원로회의 결성

성남불교개혁을 위해 지역 원로스님들이 나섰다.

성남불교사암연합회 소속 원로스님 11명은 지난달 25일 성남불교포교원에서 성남불교사암개혁위원회 결성 결의했다.

이날 원로스님들은 개혁위원회 위원의장에 삼오(석남사 주지)스님을 선출하고 10명의 원로스님들이 부위원장으로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초대 개혁위원회 위원장 삼

오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성남사암연합회가 2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나 결속되지 못하고 있다”며 “성남불교 발전을 위해 화합과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불교사암연합회는 26일 보현사에서 모임을 갖고 공식적인 회장대행으로 지목스님(성영사 주지)을 선출했다.

성남지역에는 2백50여개의 사암이 있으며 이 가운데 60개 사암이 성남시 불교사암연합회 개혁추진위를 구성했다.

### ‘자비의 집’ 시민상 수상

#### 경승선, 봉사정신 평가

경북 김천의 집(이영위)은 지난 22일 한국 기독교 1백주년기념관 강당에서 열린 경승단 창립 6주년 기념대회에서 경승들이 기억하는 ‘시인상’을 수상했다.

경승들은 소년소녀가장·결식노인과 아동에 대한 무료급식제공 등 불우이웃에 대한 끊임없는 봉사정신을 높이 평가, 자비의집을 시인상 수상단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승들이 기억하는 시인상”은 그해 시민운동발전에 공로가 큰 개인과 단체에게 주어졌다.

### 무안에 세계최대 연꽃방죽 조성

#### 불교문화행사 유치...관광객등에 ‘포교의 장’ 기대

무안군에 세계 최대규모의 연꽃 방죽이 조성된다.

무안군은 지난달 21일 금년 8월부터 97년까지 총 26억원을 투자해 무안군 일노을 복룡리 복룡저수지 33만평방미터에 ‘화산 연꽃방죽’을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1차로 올해 복룡저수지 진입로 확장 및 조성시설공사를 완료하고 96, 97년에는 수중누각, 관광농원 등의 시설을 건립키로 했다.

따라서 연꽃방죽 조성이 완료가 되면 연꽃 만개시기에 맞춰 대규모 연꽃축제와 대법회 및 각종 불교행사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지역민과 관광객을 상대로 한 포교는 물론 다양한 불교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일 과거청산 범국민운동 전개

#### 불교등 5대 종교협력 26일 결성...학계·법조계도 동참

한일과거청산 범국민운동본부(상임의장 서돈각)는 지난 2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결성대회를 열고 5대 종교계 동원 5천여명 △한일 과거의 실제적 청산 △희생정신 위령 및 평화신장 사업 등을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경과보고, 대화사, 결의문 채택, 김영삼대통령과 일본수상에게 전달하는 호소문 낭독의 순서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 5백여명의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위령비 건립 및 평화회의 종 조성 △일본의 반성과 책임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월주종단협회장, 서돈각 불교진흥원 이사장(공동의장), 김명준 평통수석부장, 최근덕 승군관장, 김재중 천도교령, 이강준 전 광복회장, 윤길중 현정회장,

유호준목사를 공동의장으로 선임했다. 집행위원장은 시현스님(조계종 문화사회복지)이 맡았다.

한일과거청산과 이를 바탕으로 평화운동을 전개기 위해 불교 천주교 개신교 천도교 유교 등 5대 종교가 협력하기는 해방 후 처음 있는 일로 주목된다. 또 이날 대회에는 권이현 학술원장, 박용준 헌법재판소장, 김

성근 광복회장, 최창규 독립기념관장, 김호일 임춘원의원 등 학계 법조계 정계를 비롯한 사회각계 지도층인사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선학원 대책위 재구성 조계종, 총화스님등 11인

지난 117회 조계종 임시중앙총회에서 해체됐던 조계종 선학원대책위원회가 집행부 차원에서 새로 구성, 지난달 25일 총무원 청사 4층에서 첫모임을 가졌다.

이날 대책위는 총무원장 재무부장 호법부장(집행부), 종지하·청화 법등 지중 현진 영배 석호(총화)스님등 11인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석주해암 지중 석수 월주 녹인 고산스님을 지도고문으로 추대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광산)는 오는 3일부터 7일까지 제14차 한국불교1600년대회를 경상남도 진주와 지리산 일대에서 개최한다.

전국 24개지부 7백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여름대회는 ‘33 더하기 21, 그리고 대불연. 조국의 아침을 여는 대불연. 21세기 새날을 준비하는 대불연’이라는 주제로 마련된다.

대학생다운 활기와 힘 있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청년불자들의 대약진의 장으로 꾸며지는 이번 여름대회는 경

### 통일기원법회·순국선열 위령제 등

#### 교계, 광복50주년 행사 다채

광복 50주년을 맞아 교계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불교 원불교 기독교 가톨릭 유교 천도교등 한국 종교인평화

회의(KCRP) 주최로 오는 14일 임진각에서 6대 종교 공동 통일기원 기도법회를 갖는다. 실천승가회(공동의장 청화·

### 21세기 새날을 준비한다

#### 대불연, 지리산서 ‘1600년 대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광산)는 오는 3일부터 7일까지 제14차 한국불교1600년대회를 경상남도 진주와 지리산 일대에서 개최한다.

전국 24개지부 7백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여름대회는 ‘33 더하기 21, 그리고 대불연. 조국의 아침을 여는 대불연. 21세기 새날을 준비하는 대불연’이라는 주제로 마련된다.

대학생다운 활기와 힘 있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청년불자들의 대약진의 장으로 꾸며지는 이번 여름대회는 경

상대 야외무대에서의 개막제를 시작으로 펼쳐진다. 이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있다” 하자”라는 소주제 아래 주제극 ‘대불연 내각’과 해방 50돌을 맞은 대한민국 50년 역사를 되짚어 보는 ‘영상으로 보는 강’의 ‘대동제’ 등을 통해 대불연의 미래를 제시한다.

또한 가수 정태춘씨를 초청, ‘나의 삶, 나의 노래’를 통해 지난날을 돌아보고,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지리산 등반을 통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의지를 확인한다.

### 조계종 불교의식 한글화 간담회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락)은 지난달 26일 녹수청사에서 불교의식의 한글화 작업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지선스님 방북신청서 제출

전북련 상임의장 지선스님이 남북불교교류를 목적으로 지난 달 21일 통일원에 방북신청서를 제출했다.

전북련은 “총무원장 월주스님의 방북이 난항과 무산의 위기에 빠져있어 부득이 지선스님의 방북신청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방북이 성사될 경우 북한불교유적지답사와 학술교류 등 폭넓은 상호교류를 모색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노동자 여름캠프

경북련 외국인 노동자마을과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이 공동 주최한 ‘외국인 노동자 여름캠프’가 지난달 30·31일 양일간 서해안 대부도에서 열렸다.

“하나됨을 위하여”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캠프에는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등 외국인 노동자 1백여명과 한국인 자원봉사자 20여명이 참가해 축구, 기마전, 줄다리기와 장기자랑 등을 펼쳤다.

### 남북 평화협정체결 촉구

불교인권위(공동대표 진관·한상범)는 지난달 27일 불교발전연구원에서 한일제종교 국제토론회를 갖고 평화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체결하고 남북한 군사대결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26일 진관스님, 존지스님(일본산 묘법사)등 국토순례에 참석했던 일본승려 20여명은 일본대사관앞에서 종군위안부 문제 사과촉구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서 존지스님은 일본불교와 대사로 일본정부의 침략역사 인정과 종군위안부에 대한 사죄 및 보상을 요구하는 촉구문을 전달했다.

### 종립불교학생회 수련회

’95 전국 불교 종립학교 불교학생회 연합수련대회가 지난 달 22~24일 2박3일간 강화도 전동사 및 강화청소년 심신수련장에서 성료됐다.

“우리 함께 가자, 저 지혜의 바다로”란 주제로 열린 이번 연합수련대회는 전국 18개 종립학교 교법사 및 지도교사와 중·고등학생들 총 6백여명이 동참했다.

구독신청: 737-0693